

# 하나의 건축물을 탄생시키기 위한 시련

李 榮 一 / 본지편찬위원, 상송 · 상지건축 대표

십여년 전에 읽은 사서삼경 속의 한 구절에 “중용을 행하기란 지극히 어려워서 칼날 위는 거닐 수는 있어도 중용을 행할 수가 없구나” 한 공자의 말씀이 생각난다. 대성현이신 공자님도 행할 수가 없다고 한 중용을 제대로 행할 수는 없겠으나 하나의 건축물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건축사는 계획과정에서 부터 설계 · 시공 · 준공시까지 많은 시련과 지성을 다하는 성실함과 참고 또 참는 인내심의 시험과정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맡아 건축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건축주의 의사를 존중하며 의도하는 바를 충족시켜 나가면서 건축주를 건축적으로 납득시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과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좋은 작품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나 자신의 책임감과 각박감 속에서 수시로 변하여 가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깊은 건축적 지식이 없는 건축주의 변경요구에 대처

하여야 하고 수시로 변하는 각종 법규에 대처하여 이중 삼중의 노력을 인내로써 참고 건축주의 의도와 건축사의 의도하는 바를 종합, 오로지 좋은 건축물의 탄생을 위하여 중용의 실천을 위한 첫번째 시련을 요구받고 있다.

두번째 중용을 행하기 위한 시련은 대내적인 것이다.

건축활동은 종합적인 것이어서 건축계획자와 구조설계자의 의견종합, 기계설비와 전기설비자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상호협조해야 하는 어려움은 물론이요 열심히 연구검토하여 스캐치한 안을 놓고 토론과 방어를 해야 함은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참으로 중요한 하나의 건축설계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남의 비평을 납득할 수 있는 건축적 수준과 관용의 자세로서 경정하고 자기의 바른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습관과 훈련이 필요하다.

간혹 올바른 토론을 자기 비방으로 오인하여 무조건 거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자기의 확실하고도 자신있는 자세로 수용 · 종합할 수 있는 건축적 능력이 요구되며 이 과정이야말로 자기 발전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어려움은 또 한번의 중용을 시행하기 위한 시련을 요구한다.

세번째 시련은 실시 설계과정에서 재료의 선택과 시공성 · 경제성 등 모든 기술적 부분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특히, 한국적 현실 속에서 건축주의 단시간 내의 설계요청으로 시간에 쫓기는 어려움에 봉착한다. 건축주의 독촉과 매일 같이 반복되는 야근의 피로에 지친 직원들의 불만의 중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중용적 어려움이 있다.

네번째 어려움은 설계가 다 끝난 단계에서 또 대기하고 있다. 바로 시공자인 것이다. 그 어려움 속에서 간신히 완성된 작품을 시공자는 자기의 개성에 맞도록 설계 변경요자 건축사와 건축주에게 끈질긴 도전을 전 공정에서 계속하여 오는 것이다. 이때 건축사는 자기의 작품보호를 위하여 미약한 힘을 다하여 지탱하기 어려운 시련에 봉착하게 된다. 물론 건축사는 시공자의 의사도 타당한 것은 받아들여야겠고 시공자는 최소한 건축사의 의도가 무엇이었으며 왜 그런 설계를 했는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도에 따르는 상호존중의 중용이 이루어져서 좋은 건축물이 탄생하는 기쁨을 같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글로 하여금 사회의 모든 분들이 건축사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건축계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바로잡습니다.

지난 2월호 본란에 게재된 글 중 우측단 위쪽 아홉째 줄의 「Line Sky」는 「Sky Line」의 잘못이었음을 밝혀, 바로잡습니다.

